



전주매일

전북형 방산 생태계 '시동'

현대로템, 무주군에 생산기지 조성... 방산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기반 마련 도 "전북 방산의 지력 보여주는 전환점... 첨단소재 방산 공급망 기지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방산기업 현대로템 유치를 계기로 전북형 방산 생태계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소재에서 완제품 실증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구조를 완성해 대한민국 차세대 방위산업의 핵심 공급망 기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3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로템 투자유치 협약은 전북 방산의 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며 "첨단소재 기반의 북보적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을 대한민국 유일의 첨단소재 방산 공급망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현대로템의 무주군 생산기지 조성이다. 그동안 전북 방산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체계종합 기업(수요처) 부재 문제가 해소되면, 도는 '소재-부품-완제품-실증'으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2면)

현대로템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전·후방 연관 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이를 지역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주 탄소소재와 원주 국가산단 새만금 권역을 연계해 첨단 복합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무기 시험·연구·실증에 최적화된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동시

실증이 가능한 여건을 활용해 드론·무인수상정·기동로봇체계를 결합한 복합 민·군 겸용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위사업청 등 13개 기관이 '새만금 안티드론 임시실증 MOU'를 체결했다. IIG네트웍과 한화시스템은 올 상반기 중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 혁신클러스터 2.0'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달 말 광역지자체 신청을 받아 6월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지정 시 2026~2030년 5년간 국비 249억 원을 포함한 총 498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은 신청 분야로 '첨단소재'를 선택했다. 이는 기존 국방 5대 분야(우주·반도체·AI·드론·로봇)와 구분되는 영역으로, 항공·대전 등 기존 방산 선도 지역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탄소융복합소재 R&D 역량을 기반으로 경량·기능성 섬유·극한소재 분야의 복합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전북형 첨단소재 방산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인재 양성도 본격화했다. 전북대학교는 올해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입생 20명을 처음 선발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연계한 HUB센터를 운영 중이다. 제작자 교육과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취득 지원 등을 통해 '교육·연구·실무'가 선순환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유도무기·우주발사체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확장도 모색한다. 추가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출발점으로 △'소부장복합단지' 지정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대로템과의 투자 협약을 발판으로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전북이 대한민국 방산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자리잡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전북이 만들고 대한민국이 쓰는 방산 제품이 세계 시장을 누비는 그날까지 이 담대한 도전을 도민과 함께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김 지사는 전북으로 오는 회사 직원들의 지역 내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연계한 주거 대책 마련, 자녀들의 학교 진학 문제를 고려해서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 진학추진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의 유수한 인재들이 전북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민호기자·무주=손흥기기자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인근 삼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세시풍속 행사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병오년 새해 소망이 담긴 소원지를 작성해 달집에 매달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활용, 부강한 전북 건설"

민주이원택 의원, "제2-제3의 대기업 유치토록 준비 철저... 새만금, 첨단 산업 심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AI·수소에너지 생산 거점을 구축기로 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전북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인프라를 확충해 제2-제3의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새만금 일대 112만4,000㎡ 부지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전해 플랜트 △태양광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약 7만1,000명의 고용 창출과 16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3일 "현대차를 설득해 투자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께 우선 감사하다"고 한 뒤 "이제는 또다른 현대차 즉 삼성, SK 등도 들어오도록 전력과 용수, SOC, 수소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소중립 미팅을 갖



고 "차남해안 벨트는 풍부한 바람과 햇빛에도 불구하고 수요(기업) 부족으로 추가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인제가 모이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나은 새만금이 기업유치의 최적지로 부상하게 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전력과 용수, SOC, 수소 인프라를 더욱 빠르게 지원하고 더욱 두텁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설계했고 새만금항의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항 특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도 주장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또한 이원택 의원은 AI와 로봇 산업의 전력 공급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그린스마트의 RE100 전환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그는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 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것은 물론 에너지융복합단지, 국가중합실증단지, 해상풍력 연구시설, 그린수소 실증단지 등 기반 확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의원이 강조해 온 '전력 생산과 전력망 구축의 병행'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 논리는 이번 현대차의 AI 데이터센터 및 수전해 플랜트 투자 결정에 한몫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이 들어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이 살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입주에 대한 방향 설정을 계기로 광화라고 원대한 천혜자연 조건을 갖춘 새만금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의 심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정헌율 시장, '아름다운 정책동행' 선언

정 시장, 불출마 공식화... 안 의원으로 단일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으로의 정책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인사는 지난달 19일 1차 정책연대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안 의원으로의 단일한 정책연대를 천명하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먼저 기자회견을 시작한 정헌율 시장은 이날 "오랜 고민 끝에 전북도지



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익산시장으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상한 전북 발전의 청사진과 익산의 핵심 공약은 안호영 의원이 이어받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책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흔쾌히 결단해주신 정헌율 시장님의 용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민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